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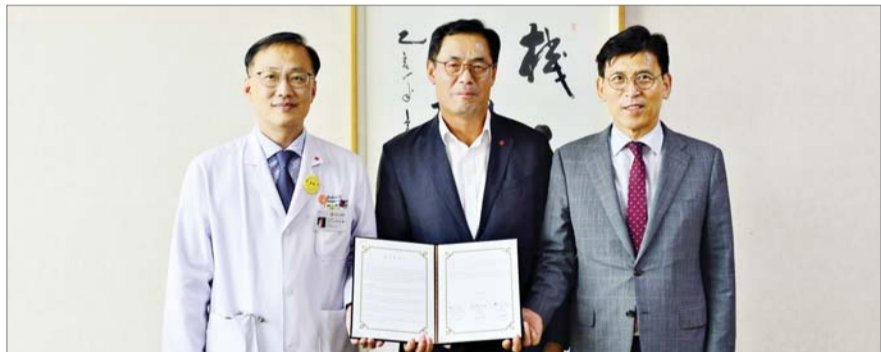
삼성증권, 업계최초 해외 연기금과 투자협약
삼성증권이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해외 연기금과 글로벌 인프라 투자 기회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삼성증권과 캐나다 퀘벡주 연기금(CDPQ)은 지난 3일(현지시각)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 위치한 CDPQ 몬트리올오피스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왼쪽부터)클로드 베르주홍(Claude Bergeron) 투자총괄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엠마뉴엘 자플로(Emmanuel Jaclot) 인프라 담당 대표. /삼성증권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소비자만족지수 1위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가 지난 3일 '2019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공공서비스 부문)를 수상했다. 일자리 플랫폼과 온라인 소통채널인 '잡아바'는 다양한 콘텐츠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지난해에 이어 이 부문 2년 연속 수상이다. /경기도



BNK경남은행, 추석맞이 소외계층 지원활동
BNK경남은행이 '추석맞이 소외계층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경남은행은 오는 11일까지 경남과 울산지역 각지에서 '사랑의 송편 빛기 행사'를 순차적으로 연다. 정성 들어 빛은 송편은 경남과 울산지역 소외계층 가정 1000여세대에 전달한다. 또한 경남·울산 각 시군이 추천한 소외계층에게 2억7500만원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황윤철 경남은행 은행장(오른쪽)이 창원시청 허성무 시장과 포즈를 취했다. /BNK경남은행



롯데GRS-늘푸른의료재단 등과 중증장애아동 지원 협약
롯데GRS가 늘푸른의료재단, 홀트아동복지회와 지난 3일 성남시 분당구 보바스기병원에서 중증장애아동 의료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권순용 보바스어린이의원장(왼쪽부터), 남익우 롯데GRS 대표이사, 김호현 홀트아동복지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GRS



오비맥주 '음주운전 타파 차량 스티커 공모전' 시상식
오비맥주는 지난 3일 오비맥주 본사에서 '음주운전 타파 차량 스티커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7월 25일부터 8월 21일까지 약 한 달간 열린 공모전에 총 1191개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11개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고통우 오비맥주 대표(두번째 줄 왼쪽 세번째),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두번째 줄 왼쪽 두번째)이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비맥주

할머니 손은 약손



진성오 소장의
심리학패

필자는 어렸을 때 방학이면 외가를 자주 가서 거의 방학 내내 지내곤 하였다. 그렇게 외가를 가면 항상 외할머니가 필자를 애지중지 하시면서 돌봐 주셨다.

지금도 시골 분들은 그렇지만, 당시 시골 할머니의 정이란 항상 뭉가 배불리 먹이는 것이었다. 귀여운 외손자나 오죽 했을까? 그래서 한번 시골을 다녀오면 초등생이었던 필자는 약 5kg 씩 살이 찌져 올라왔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할머니가 주시는 데로 먹다 보면 간혹 소화를 못시켜 배탈을 경험하곤 하였는데 배탈치료 법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늘로 손가락 마디를 따는 것이었다. 효과가 있었지만 더 효과적인 것은 외할머니가 '내손은 약손이다'라고 말하면서 필자의 배를 문질러 주시는 것이었다. 배를 그렇게 몇 십분 문질러 주시면서 '주문'을 외우시면 감쪽같이 배탈이 나왔다. 당시 어린 나이지만 필자는 그 현상을 매우 신기하게 여겼는데, 커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러한 현상을 '플라시보'라고 하며 할머니의 약손이 단순히 최

면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라는 사실도 알았다.

플라시보(영어: placebo)는 라틴어로 '마음에 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진짜 약이라고 하고 가짜 약을 투여해도 '좋아질 것'이라는 환자의 믿음 때문에 병이 낫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 약이 턱없이 부족했던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많이 쓰였던 방법이며 이러한 심리현상을 플라시보 이펙트(위약효과)라고도 한다.

또한 좀 더 전문적으로 플라시보는 실험자나 피험자가 서로 플라시보 약물이 처방되는지 몰아야 하는 것과도 연관되며 이를 이중맹검 검사라고도 하는데 이는 정신약물학이나 약물정신의학에서 핵심적인 통제 요소라고도 한다.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간 경우 응급실 병상에 누워 별로 처치를 받지 않았는데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 사례나 감기에 걸렸을 때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먹으면 낫는다는 속설은 주변에서 혹은 볼 수 있는 사례다.

이렇듯 좋아질 것이란 믿음에서 비롯된 플라시보 효과는 사실 정신약물을 개발하는 연구원들에게는 매우 골치아픈 것이기도 하다. 특히 심리학 실험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만 해도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데 이러한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상 때문에 진짜 약물의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하물며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 실험에서는 이러한 플라시보 효과는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플라시보 효과는 무시할 수 없고, 실제 많은 학자들이 이 효과를 인정하며 더 나아가 이 효과를 치료에 이용해보려고도 한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심리가 신체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플라시보 효과다. 이런 면에서 믿음이 산을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가끔 두통을 없앨 수는 있고, 진짜로 어떤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플라시보 효과는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아마 외할머니의 손을 진짜 약손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순수한 믿음 때문에 어떤 약과 방법보다도 더 배탈에 약효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지금도 외할머니의 약손이 효과를 볼까 궁금하다. 아마, 이젠 다시 그 손을 만질 수 없지만 외할머니의 손이 필자의 탈이 난 배를 문질러 주실 수 있다면 그 어떤 약보다 효과적으로 배탈을 고칠 것이다. 왜냐하면 필자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말이다. /당신의마음연구소장

추석 맞아 건물관리 근로자들에 나눔행사

하나금융투자
'이웃과하나되는 사랑의 한가위'

하나금융투자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여의도 본사 1층 로비에서 '이웃과 하나되는 사랑의 한가위' 행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웃과 하나되는 사랑의 한가위' 행사는 본사 건물의 환경미화, 보안, 주차안내 등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물 관리 근로자 80명을 위해 하나금융투자가 마련한 행사다.

하나금융투자는 임직원들이 간직하고 있던 소중한 물품들을 바자회에 내놓아 마련한 기금으로 정육세트를 준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앞줄 가운데)이 하나금융투자 건물관리 근로자 대표들과 하나금융투자 임직원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비해 본사 건물관리 근로자들에게 명절선물로 증정했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은 "건물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 직원들이 쾌

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근로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인사

◆국세청 ◇ 행정사무관 [국세청] △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고완병 △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정수 △ 국제통계담당관실 김진환 △ 전산정보관리관실 국제청빅데이터센터 이성필 △ 정보보호팀 박정국 △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백주현 정영철 △ 감찰담당관실 김용환 노병현 정영훈 △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민석 △ 심사1담당관실 송지은 △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영식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형기 △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고당훈 △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문상목 △ 상호협력담당관실 김미애 △ 징세법무국 징세과 윤기철 채정훈 △ 법무과 안선표 △ 법령해석과 김현성 장준호 △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황진하 △ 전자세원과 정성영 최홍신 △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김영주 박승호 △ 원천세과 강신혁 이대희 △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김영근 △ 상속증여세과 김현경 △ 자본거래관리과 홍강표 △ 조사국 조사기획과 문성호 이윤석 △ 조사1과 김태선 △ 조사국 조사1과 장상우 △ 조사2

과 김지태 △ 국제조사과 김용우 △ 세원정보과 박용관 정홍기 △ 조사분석과 정찬성 △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 최은미 △ 학자금상환과 김성연 △ 운영지원과 김홍식 정종룡 황하늘 [서울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오태진 조용진 △ 징세관실 김춘경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윤만식 △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김선일 이종준 △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이수빈 △ 법인납세과 권민정 박경은 △ 송무국 송무1과 윤성중 △ 송무2과 정승환 △ 송무3과 권충구 △ 조사1국 조사1과 조성경 △ 조사2과 김희찬 조성준 황용연 △ 조사2국 조사1과 신성철 △ 조사2과 신세용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진범 △ 조사1과 백성기 △ 조사2과 김미정 박양운 △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미나 허천희 조사과 윤광현 △ 조사2과 전종상 △ 조사3과 김동윤 △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이민구 황지원 △ 국제조사2과 박순준 황보영곤 △ 운영지원과 김명규 이원우 △ 중부세무서 조사과 강현주 △ 남대문세무서 개인납세과 정태경 △ 용산세무서 운영지원과 김소연 △ 서대문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조재량 △ 강남세무서 조사과 김승욱 △ 삼성세무서 조사과 명

환준 △ 서초세무서 법인납세1과 민철기 △ 중랑세무서 개인납세2과 이서행 △ 강동세무서 개인납세1과 김용령 △ 송파세무서 법인납세과 김효상 [중부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김동조 심희준 △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송찬주 △ 개인납세2과 양구철 △ 징세송무국 징세과 이승미 △ 체납자재산추적과 현진호 △ 조사국 조사1과 안미경 허영섭 △ 국제거래조사과 정광용 △ 조사2국 조사1과 정홍진 최정희 △ 조사2과 박경옥 △ 조사3국 조사관리과 허곤 △ 조사1과 박광석 △ 조사2과 신진규 △ 운영지원과 권우태 한광인 △ 안양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김국현 △ 평택세무서 조사과 김분희 △ 경기광주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오승찬

부음

▲ 임동혁씨 별세, 임은림·임승배(취신세계 상무)·임현선씨 부친상, 허병두(서울 송문고 교사)·강종석씨 장인상, 박교현씨 시부상 = 4일 오전 1시15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6일 오전 6시45분, 장지 충남 천안 풍산공원묘원. 02-2258-5940